

전남 국립의대 설립 지금이 골든타임...지역사회 역량 결집

전남도·범도민추진위, 포럼 갖고 "정부·의료계·대학, 지혜 모아주길"

전남도가 30년 숙원 사업인 국립 의대 설립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4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전남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와 국립의대 설립 포럼을 열고 상생·화합을 바탕으로 국립의대를 반드시 설립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범도민추진위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 결의문'을 발표하고 모든 역량을 모아 노력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국립의대 설립에 정부와 전남도, 의료계, 대학 등이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건의했다.

범도민추진위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를 향해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마련 과정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배정'을 건의하는 한편, 전남도에 대해서는 공모방식에 의한 대학 추천 절차를 신속·정확하게 추진하고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건의했다.

또 의료계에 대해 의대가 없는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에 적극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고 순천·목포에 전남도의 공모 방식에 의한 대학 추천 절차에 참여할 것을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범도민추진위 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설명했다.

장 실장은 "정부가 5월 입시요강에 '2026년 대입전형시행계획까지 확정' 한다고 발표했고 2025학년도 의대별 자율 모집인원이 1550여명으로 확정돼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에 450여명의 여유 정원이 남았다"고 설명한 뒤 "전남도가 지금 단계에서 대학을 추천할 수 없지만 450여명의 여유 정원 중 2026학년도 의대 신설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모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장 실장은 또 "전남도의 '공모절차'는 정부에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선정 절차로 정부 요청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임을 확인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권한 없는 공모' 주장을 반박했다.

허정 범도민추진위원회 대표 위원장은 "지금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과도한 경쟁과 대립은 자제하고 대학, 지자체, 도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논의의 장에 참여해 상생·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전남도는 정부 요청에 따라 '공모 방식에 의한 대학 추천 절차'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어느 한 대학이 선정되더라도, 미선정 지역에 대한 도민 건강권과 지역발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는 각계 도민대표 333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1월 출범해 전문가 포럼, 범도민 서울 결의대회 등으로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상생과 화합으로 도민을 위한 도민의 국립의과대학 설립 완수



전남도는 지난 14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전남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와 결의대회, 포럼을 잇따라 열고 국립의대 설립에 정부와 전남도, 의료계, 대학 등과 함께 역량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전남도 제공>

의대 증원 갈림길...법원 판단 초읽기

기각됐 27년만의 증원...인용되면 내년도 증원 무산

석 달째 이어지는 의정(醫政)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된 의대 증원을 놓고 법원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정부의 증원 작업에 속도가 붙겠지만, 받아들일 경우 내년도 증원 계획은 무산된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의정 갈등이 당장 봉합될 가능성은 작아 의료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5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6일이나 17일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절차와 논 의 내용 등을 담은 근거 자료를 이달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았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지(기각)를 결정

한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증원 근거 자료를 놓고 한 차례 강하게 맞붙었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각종 자료를 대중에 공개한 의사단체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중)는 "(증원 규모) 2천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인 추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2천명 증원은 "정책적 결정"이라고 맞섰다.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을 결정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만, 인용하면 내년 증원은 없던 일이 된다. /연합뉴스

전남연구원, 세계 주요 6개국 정책 정보지 창간

'글로벌 정책 인사이트' 제 1호

전남연구원이 지난 14일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세계 주요 6개국의 정책을 소개하는 '글로벌 정책 인사이트(Global Policy Insights)' 제1호를 발간했다. 이 정보지는 전남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직접 받아볼 수도 있다.

전남연구원 글로벌정책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정책 인사이트'는 정치·경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정보지로, 전남도와의 교역 비중 등을 고려해 6개국을 선정했다. 내용은 정책 동향, 경제 동향, 전남연구원의 국내외 교류현황 등 총 3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정책 동향' 부문에서는 주요국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 ▲청년 고용 활성화, ▲무역 규제(TBT), ▲관광 활성화,

▲스마트농업, ▲재생에너지 개발 등과 관련된 정책을 살폈다. '글로벌 경제 동향'에서는 국가별 경제성장률, 수출입액 등 주요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미국 등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나, 향후 지정학적 위험 및 무역 보호주의 확산 등의 변수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경제적 측면에서 비중이 높아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는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등 전남의 주력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경제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남연구원의 국내외 교류 현황'에서는 올해 1월에 개최한 저장성 사회과학원,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등 중국 연구기관과의 학술세미나와 제6대 총영사로 부임한 구정주 주광주총영사와의 교류회 내용을 소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곳곳 창업기업 실증데이터 장소로 제공

14개 기업 선정...6월부터 지원

광주시에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게 지역 곳곳을 실증 데이터 시험무대로 제공한다.

광주시는 지난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창업기업제품 실증 경진대회'를 열고 확장현실 융합 시스템 솔루션을 선보인 '썬에스씨 크리에이티브'를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썬에스씨 크리에이티브'는 실증지원금 외에도 추가 지원금 5000만원을 받는다.

이번 경진대회는 외부 전문가와 50여명의 시민 평가단의 심사를 거쳤으며, 썬이인, 썬커넥티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실증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3000만원을 확보했다. 이어 우수상을 수상한 주식회사 모바힐, 썬제이아이씨티는 실증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2000만원을 각각 확보했다.

광주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의 열정과 도전의지 ▲제품의 시장진입가능성 ▲기술향상을

통한 미래가치 담보 ▲투자자의 빠른 이익실현 가능성 등 다각적인 실증투자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평가해 선정했다.

이번 '창업기업제품 실증 경진대회'에는 공모를 통해 총 44개 기업이 지원했으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14개 기업을 선정했다.

올해는 자율형과 솔루션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하며, 광주시의 '시원한 도시 조성사업'의 솔루션형에 참여해 폭넓은 제품 실증할 2개 기업을 제외한 12개 기업이 이번 경진대회 참여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6월부터 실증에 필요한 장소를 맞춤 지원받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혁신기술 제품 실증을 위해 도시 전체를 시험무대로 제공하는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으로 36개사를 지원해 매출액 65억원 달성, 신규고용 46명, 국내외 판로확보 등 성과를 거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양파 생육장애 재해 인정 정부에 건의

전남도가 겨울철 지속된 고온과 잦은 강우, 일조량 감소 등에 따른 양파 생육장애를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주요 사군 평균 기온이 평년(섭씨 6.7도)보다 19% 증가한 섭씨 7.9도, 강수량은 평년(266.5mm)보다 76% 증가한 470.5mm, 일조량은 평년(749시간)보다 53% 감소한 346시간으로 집계됐다.

양파 주산지인 무안과 신안지역의 경우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 등으로 약 1370여ha(점정)에서 일마름과 성장 지연(구비대 불량) 등 피해가 발생했고,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이는 전남 양파 재배면적(6862ha)의 약 20%에 달한다. 이에 전남도는 양파 생육장애를 재해로 인정하고 수확기 이전 신속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광산구 공고 제2024-1121호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건설공사」의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인정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관계 전문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관계 서류를 열람하시고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0일
광산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도로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광주방면) 건설공사
3. 사업기간(예정): 실시계획승인일 ~ 2028년 12월 31일
4. 사업예정지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오문동, 도덕동, 명도동, 송산동, 남산동 일원
5. 사업내용 및 규모: 도로개설(연장 5.93km, 폭원 20.0m)
6. 사업시행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7. 사업의 목적: 빛그린 국가산단단지 인근 국도와 접근성을 확대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8.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가.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광산구청 건설과 (☎062-960-8564)
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기간: 2024. 5. 16 ~ 2024. 5. 30(15일간)
다. 열람 및 의견서 제출 방법: 열람기간 중에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고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청 건설과 (☎062-960-8564)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김무열(481101-1XXXXXX)
- 최후주소: 전남 화순군 한천면 산골길 45 (오문리)

피상속인 망 김무열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4-단3502호로 신청하여 2024년 5월 1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5월 16일

- 상속인: 김나자(850701-2XXXXXX)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6-19, 1동 801호(화곡동, 성재센터리움아파트)
- 신고기간: 2024. 5. 16 ~ 2024. 7. 26.
- 채권신고처: 상속인 김나자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조금식(500321-1XXXXXX)
- 최후주소: 광주 서구 영화로40번길 20, 2동 810호(화정동, 럭키아파트)

피상속인 망 조금식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4-단407호로 신청하여 2024년 5월 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5월 16일

- 상속인: 임순화(550108-2XXXXXX)
광주 서구 영화로40번길 20, 2동 810호(화정동, 럭키아파트)
- 신고기간: 2024. 5. 16 ~ 2024. 7. 26.
- 채권신고처: 상속인 임순화의 주소

상행안내

5월18일(토)

▲광주호산회(제673차 정기산행 제천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트레킹) 05시 30분 풍암동 롯데마트 7주자장출발 05시 40분 진월동 육교길 05시 50분 백운우체국 06시 10분 광주예술의전당 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컬빌딩
840㎡ 바닥628㎡ 대형건물
약국, 의료기관 4개입주

월 3천4백만원
매가78억

은행 36억5천,보9억4천포함

인수가 32억

010-3646-8700

지분임야

바로 삽니다
010-5962-3900

안 팔리는 부동산
교환,매매
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光州日報

광교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행구독 (062)220-0550